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11월 1일에 "예수 사랑 큰 잔치"

오늘 찬양예배는 헌신예배로 드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가운동에 참여를!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주일부터 분과 및 교구일꾼별로 있었고, 오늘 오후 5시 찬양예배 시간에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 헌신예배로 드리게 된다.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이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92 예수 사랑 큰 잔치(11월 1일)를 앞두고 각자가 반드시 전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본당에서 교구별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전도 간증을 통하여 전도의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하게 된다.

다. 신성종 목사(설교), 김민식 집사(찬양 인도), 송경호 집사(전도 간증, 대전중부교회 총동원 최다 초청자), 김석균 집사(특별 찬양, 복음성가 가수)가 순서를 맡는다. 또한 이 예배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작성, 봉헌하는 순서도 갖는다.

11월 1일 주일을 총동원의 날(D-day)로 설정하고 각 분과별로 준비, 추진되고 있는 이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는 약 35,000명을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이란 표어 및 구호를 앞세워 총력 전도에 앞장서게 될 이번 92 예수 사랑 큰 잔치는 교회 차원의 큰 행사이며, 심혈을 기울여 총력 대진할 전도 운동이다.

온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 행사에 솔선수범 참여하고, 한 사람이 열 사람 이상씩 인도하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결과가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며 앞장서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

카메라 초점



▲ "목회와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9월 14일 개강한 전국 목회자세미나. 이날 732명의 목회자들이 등록하였다.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차량스티커 제작

이번 11월 1일에 실시하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사용될 차량스티커가 제작되었다. 스티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예수 사랑 : 전체 주제를 상징한다.
- 십자가 :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한다.
- 하트 : 잃은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 무지개 : 중헌교회의 중탑이 건립되던 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장로 선거 위한 후보 29명을 임시당회에서 결정

교회는 지난 9월 16일 오후 8시 10분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지난 공동의회서 결의되어 위임된 제27대 장로 후보 29명을 추천하였다.

이날 당회에서는 46명이 참석하여 안수집사 63명 중 기명투표 방식으로 배수공천 숫자인 30명 중 29명이 선임되었다.

이들 29명은 오는 9월 27일 공동의회서 중헌교회 등록 세례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 투표 인원의 3분의 2선을 받았을 경우 장로 후보로 피택된다.

29명의 명단과 개인의 신상 명세는 3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살롬경로대학 개강

살롬경로대학(학장 신성종 목사)의 92년도 제2학기 강의가 지난 9월 17일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모두 152명이 등록하였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성경공부, 특강, 특화, 야외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구역장 훈련 실시 23일부터 6주간

교회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즈음하여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각 교구의 새가족지역(가칭)에서 책임있게 관리, 양육하기 위하여 이들을 맡을 비상특별구역장을 미리 훈련시키기로 하였다.

이 훈련은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본당에서, 기존 구역장 전원과 각 교구별로 추가 선정된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준비찬송, 교육(강

의 당회장 신성종 목사), 교구별 지도 모임(각 교구담당목사 지도) 순으로 진행된다.

· 교육내용

1주	구역 조직의 필요성
2주	구역장의 지도력
3주	구역장과 심방
4주	구역장과 기초 양육
5주	구역장과 전도
6주	구역 운영의 실제

중헌프리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27일) 공동의회를 열어 제27대 장로를 피택하게 된다.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어서 성경적 교훈을 알고자 한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교훈이 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했고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다.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장로의 자격은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교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믿지 않는 불신 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헌교회의 장로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 깨끗해야 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 자격이 있을 수 있는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낭패요, 교회에도 덕이 될 수 없다. 기도하면서 선택을 잘 해야겠다.

◎...지금 언론사나 민간 사회단체 일

부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여 전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다는 집계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 운동에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주일 오후 지하 주차장, 그리고 교육관 각 화장실 앞 복도는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깊이 생각해 볼 현안이다.

중헌 전도대 교육

11월 1일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각 전도회 지회들의 전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교육과 전도 활동을 실시합니다.

- 일시 : 9월 27일~10월 18일 주일 오후 3시 30분~4시 30분
- 장소 : 갈릴리홀
- 대상 : 각 전도회 지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 교육 후 교구별로 특수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마7:7~12)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현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져가고 있습니다. 빠른 인생 속에서 불안한 일과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불안하고 험한 인생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록하고 의로하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을 낮고 천한 존재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곧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주셨

2. 기도의 방법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불신의 상태로 빠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고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회개의 문과 은혜의 문과 전도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3.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7:12)
이 말씀의 첫머리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7장의 서두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 우리들의 생활이 크게 변화됩니다.
이 구절을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은율(silver rule)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율과 비슷해보이나 실제로는 이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율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

다. 그것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며, 동시에 인생의 해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와 같아서 날마다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정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힘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회생시키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을 돌보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약1:5)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7~11)
본문 7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1. 기도의 대상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적절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주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약1:5)

첫번째로, 구한다는 것은 앓은병이 기도로서, 한 번 구하고 마는 기도입니다. 마치 커지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듯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찾는 일에 필요합니다. 이는 여러 차례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두드리는 기도는 애쓰고 힘써서 뛰어들며 찾는 기도입니다. 이룰 때까지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황금율을 인간이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황금율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7대 장로 후보 추천자 명단

◆ 이곳에 게재된 장로 후보 명단 순서는 임시당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황의만**
나이 4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청년2부부감 지역장
번호 1



성명 **김형선**
나이 49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장년1부부감 선교위실행 위원
번호 2



성명 **임무천**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고등부부감 지역장
번호 3



성명 **정홍식**
나이 4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대학부부감 지역장
번호 4



성명 **박인건**
나이 6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세례부부감 제직회서기
번호 5



성명 **이중섭**
나이 5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가브리엘찬양대부대장
번호 6



성명 **최기훈**
나이 58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예배위실행 위원, 전도위 실행위원
번호 7



성명 **강봉수**
나이 47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소망부부감 지역장
번호 8



성명 **최차용**
나이 55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사랑부부감 지역장
번호 9



성명 **황영일**
나이 4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중등1부부감 지역장
번호 10



성명 **정정주**
나이 5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기획실 출판인쇄과장
번호 11



성명 **진홍용**
나이 5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재정위회계 선교위실행 위원
번호 12



성명 **김인관**
나이 6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장년3부부감 지역장
번호 13



성명 **전홍렬**
나이 49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아멘찬양대 부대장
번호 14



성명 **박미련**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1부부감 지역장
번호 15



성명 **양종섭**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4부부감 지역장
번호 16



성명 **채수경**
나이 52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경로대학부감 지역장
번호 17



성명 **고병국**
나이 5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에바다부부감 전도위실행 위원
번호 18



성명 **이갑재**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3부부감 지역장
번호 19



성명 **이병옥**
나이 59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장년3부교사
번호 20



성명 **한송규**
나이 50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2부부감 지역장
번호 21



성명 **주원홍**
나이 65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일어교육부 부감 지역장
번호 22



성명 **이동명**
나이 46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초등6부부감 지역장
번호 23



성명 **최윤덕**
나이 5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탁아부부감 지역장
번호 24



성명 **권명옥**
나이 41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영아부부감 지역장
번호 25



성명 **김환기**
나이 43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청년3부부감 지역장
번호 26



성명 **손철**
나이 44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지역장 선교위실행 위원
번호 27



성명 **안동현**
나이 45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새가정부부감 지역장
번호 28



성명 **김구형**
나이 43
직분 안수집사
봉사부서 새가족부부감 제직회부서기
번호 29

외국인 가족 초청 오찬회

영어예배부(부장 김천채 장로, 지도 윤영탁 목사)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3일 칼빈홀에서 충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 가족들을 초청, 오찬을 베풀며 뜻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1988년 시작된 우리 교회 영어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베다니홀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커피 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어 10시 30분부터는 선교관 4층에서 외국인 가족을 위한 영어주일학교가 유치반에서부터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날로 외국인 가족들



이 늘고 있다.

또한 영어예배의 시온찬양대(지휘 이수철 집사, 반주 조희영 집사)는 매주 아름다운 영어찬양을 열심히 준비하여 큰 은혜를 끼치고 있다.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이준우 전도사)가 주관하는 수화 교실이 개강하였다.

지난 9월 14일 오후 7시, 조인제 장로의 사회와 이준우 전도사의 기도, 김성운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 이 수화 교실은 지금까지 농아자 복음화의 산실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다.

수화교실은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진행된다.

성경 제1권 - 창세기

1. 저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운 자(행7:22)로서, 모든 기록, 필사본, 구전 자료들을 해독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섭리적으로 준비되었다.

2. 기록 연대, 장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기록(왕상6:1)은 모세가 살았던 기간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준다. 전자가 기원전 966년이므로 후자는 기원전 1446년이 된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원전 1446년부터 1406년이 모세가 오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시기와 가장 일치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3. 특징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모든 기사를 제공하고, 가족의 형성, 죄의 기원, 하나님의 계시, 종족의 번성, 그리고 선택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 등을 말해

준다.

창세기는 다른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책이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풍부하고 복잡하며, 전체 성경의 메시지의 개요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세기는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관계 규명의 책이다. 창세기는 다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범신론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유일신론을 철저히 주장한다. 즉 한 분의 참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주권적으로 선택한 인간에게 무제한적 자유를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하는 희생 제사를 명시하고(22장), 악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최초로 암시하며(창3:15, 롬16:17~20), 믿음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오한 정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창15:6).

영아부 구원동화대회 초등2부 성경이야기대회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는 오는 9월 27일 예배 시간 후 아멘홀에서 구원동화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여 진행되는데,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이다.

한편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어린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9월 20일 성경이야기대회를 개최한다.

'92 새생명 새비전 대학부 배가 운동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교회 배가 운동에 부응하여 '92 새생명 새비전을 전개한다.

이 행사는 전도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한 것이다.

9월 20일에는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찬양 집회, 24일에는 캠퍼스별 익수스 모임, 26일에는

찬양, 방송제 등 학년 한마당, 주일인 27일에는 친구 초청 집회로 행사를 진행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나가게 된다.

새가족부 성경퀴즈대회

새가족부(부장 오정현 장로, 지도 김용기 목사)는 오는 9월 27일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 성경퀴즈대회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구역예배 ● (1992. 9. 25)

성도의 구제 생활

- 본문 : 신명기 15장 7절~11절 · 찬 송 : 373장, 376장
- 요절 :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5:10)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이웃이 없어져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라는 사회가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손을 펴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 보면서 각자의 구제 생활에 대하여 점검해봅시다.

1. 구제는 우리가 피해서는 안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10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11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 특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멸시받기 쉬운 자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선택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의무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눅10:25~37). 그러므로 구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2. 구제는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 구제할 사람이 있기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치는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땅에는 언제나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11절) 어쩌면 가난한 자들은

은 성도들의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남겨 놓으시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약1:27).

3. 구제는 곧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것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외된 이웃의 필요를 알고 돌아보는 것은 곧 주님께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마25:40). 또한 우리가 구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마6:1~4).

◆ 결론

구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일로 장려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제에 있어서 당신의 이웃에 대한 자세는 주로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베푸는 편입니까?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20:35)

◆ 적용 및 기도

1.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구제 생활이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지속되게 하소서.
2.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